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 - 1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



---

2. 우리가 거듭난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신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정죄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



---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



---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 Sermon of the Week:

### The Starting Line of Faith



Passage: 1 Corinthians 2:6-12 (ESV)

Date: January 25, 2026

Pastor: Young Min Suh

In our life of faith, there are two essential kinds of knowledge we need. One is knowing ourselves, and the other is knowing God.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His righteousness and the Law, God confronts humanity with the question He first asked Adam: "Where are you?" This call exposes our true spiritual condition and identity. When we recognize that we are beings corrupted by sin in Adam and face our true condition, only then do we come to experience the grace of God through Jesus Christ. When this realization dawns upon us, answers to life's fundamental questions—where we come from and where we must go—become clearer.

Being born again is not the finish line of faith; it is the starting line. Many believers treat obtaining salvation as the end goal, but it is only the foundation. God comes to dwell within us through the Holy Spirit after we are born again, enabling us to experience more deeply the grace of "Jehovah Jireh" [Gen 22:14] that He has prepared for us in Jesus Christ. In today's passage, the apostle Paul speaks of wisdom given to the "mature," that is, to those who have grown and advanced spiritually. If we remain only at the stage of rebirth, we may make it to heaven, but we will not experience complete victory in this land where Satan reigns,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the flesh and the forces of darkness constantly try to drag us down into anxiety and fear.

There may be a hundred problems in life, but there is only one answer to them all. People of the world waste their entire lives searching for that answer in power, wealth, or knowledge, only to return to dust in the end. But the only One who has resolved the problems of sin, death, and eternal condemnation is Jesus Christ alone. When we correctly understand the truth of His shed blood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all fundamental problems are resolved. The Lord invited us, saying,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The burden spoken of here is not merely material hardship or illness, but the burden of the "old self" inherited from Adam and the burden of death that flows from it. The Lord bore this burden on the cross on our behalf and granted us true

rest.

The wisdom of the cross is a mystery of God that cannot be known by the wisdom of this world. If the world had known this mystery,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Even the demonic powers did not comprehend it—they thought killing Jesus would secure their triumph, but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He conquered death itself and resolved humanity's ultimate problem. To those of us who are called, this cross, which is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reeks, becomes the power and wisdom of God.

God has revealed this astounding grace to us through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era, the Holy Spirit would come temporarily and then depart, but in the New Testament era, the Spirit—having passed through Jesu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has become the "life-giving spirit" who is eternally united with our spirit. "He who is joined to the Lord becomes one spirit with him." We are no longer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Satan continually tries to interfere with our emotions and circumstances, whispering, "After all this, are you really a child of God?" Yet we must stand on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and declare: "I am a new creation in Christ."

What we must do is "open our mouths wide". All we must do is eat the message of grace of the Lord's death and resurrection in faith. Just as Paul confessed, "I die daily," we must daily accept the death of the cross into our spirit, soul, and body. As the measure of death within us increases, our own plans and purposes fade away, and the plan of Christ who lives in us is revealed. When I die, the Lord works. When I rest, the Lord becomes a mighty warrior and fights for me.

No matter how intense the darkness may be, it flees instantly before even a small candle. When Jesus, the light of life, works within us, all sickness, suffering, problems with children, and the darkness of life will retreat. Just as the man who had been sick for 38 years rose at a single word from the Lord, and just as the waters of the Jordan parted when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stepped into it, we must move forward in faith,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the cross. When we regard suffering as beneficial and live a victorious life each day under the law of the Spirit, we will become true witnesses who proclaim Jesus to the ends of the earth. May we live lives that daily experience and overflow with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power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 심나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2월 8일 2026년

NASUNGCHURCH.NET

93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12절

날짜: 1월 25일, 2026년

설교자: 서영민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값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공의와 율법을 통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위치와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로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모습을 직시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듭남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온전한 자들', 즉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한 자들에게 말하는 지혜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에만 머물러 있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언정, 사탄이 왕 노릇 하는 이 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백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해답을 권세나 재물, 학문에서 찾으려 일생을 허비하다 결국 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죄와 죽음,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림과 부활이라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짐은 단순히 물질이나 질병의 짐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창조'의 자아와 그로부터 나오는 사망의 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일 세상이 이 비밀을 알았다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영들도 이 비밀을 몰랐기에 예수를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으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기도 하셨으나, 신약 시대의 성령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모든 과정을 거친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 영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형편을 들먹이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시인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이는 심령의 믿음의 입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 영과 혼과 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의 죽음의 분량이

확장될 때, 내 계획과 목적은 사라지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계획이 나타 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쉬면 주님이 용사가 되어 싸우 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렬해도 작은 촛불 하나에 순식간에 달아나듯,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질병과 고통, 자녀 문제와 삶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고,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라는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유익으

로 여기며, 날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넘치게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예배에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Lobby 옆 새가족실에서 함께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양희 집사 86세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어깨 수술 (오른쪽 회전근개파열) 후 재활치료 중인데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이 심합니다.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베드로선교회 방광암 치료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